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30회차, 영적전쟁, 에베소서 6:10-21

© 2024 댄 다르코 (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강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 30, 에베소서 6:10-21입니다.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의 마지막 강의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몇 강의에서 에베소서를 살펴보았다는 걸 알죠. 그리고 제가 꽤 오랜 시간 공부한 책인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에 대한 공부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줄 좋은 메모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 6장 10절부터 책의 끝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책이 에베소와 그 주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의 필수적인 부분, 특히 영적 존재의 일과 관련된 그들의 세계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주 처음에 저는 약 50개의 이교도 신사가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최소한 현대 고고학자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서 있었을 약 50개의 이교 사원 유적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이었습니다.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곳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구성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로마인이나 그리스인일 수 있습니다.

편지를 시작했을 때, 저는 바울이 이 배경을 감안할 때, 제가 숨가쁘게 부르는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룰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마을의 신들, 마법의 힘, 점성술사들로부터 영적 축복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1장 끝에서 바울은 실제로 풀어서, 그 끝에서 그는 그들이 강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이 강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한 영역 중 하나는 2장과 연결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능력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일하고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킨 권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일으켜 모든 권세와 권능 위에 높이신 권능이었으며, 1장 마지막에 그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의 권능은 마법의 권능을 포함한 모든 상상할 수 있는 권능을 능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이름이 명명된다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당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적 권능을 능가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장에서 23절을 마치며, 교회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승리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방금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 것을 바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지 않는 자로서 있었던 곳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있는 곳 사이의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이 당신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당신은 영적 권세, 특히 공중 권세의 왕자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갔고, 그는 위대한 진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생하게 기억하듯이, 아마도 저는 그 구절들을 좋아하는데, 그것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8절,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랑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방금 말을 끝낸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 곳 때문에 공로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교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공로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2장 11절부터 교회에 필요한 연합을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연합입니다. 그것은 적대감의 분열의 벽을 허물고 우리 모두를 믿음의 집안 식구로 만든 연합입니다.

3장에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해 계속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모았고,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였던 그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신비를 선포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중보 기도에서 다시 기도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4차원적인 것들과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에게 큰 찬송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4장에 대한 짧은 코멘트를 하고 제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에서 영적인 존재의 역할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어떤 영적인 권세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고, 바울에게 이 신비를 전할 은혜를 주셨으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분이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영광은 영원무궁토록 그분께 있습니다.

그에 근거하여 그는 4장을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회원이나 독자들에게 영 안에서 연합을 유지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연합을 만들거나 육성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그들이 연합을 간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합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합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위해 많은 영적 은사를 받았고,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시켰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이방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행동을 바꾸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임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4번의 강의에서 논의했던 많은 면에서 그들에게 도전하실 것이다. 그들의 말, 그들의 성적 행동, 그들의 직업 윤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개발되어야 할 미덕들.

5장에서 그는 정체성에 대해 정확히 언급합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이 전개되는 수단입니다. 그는 그들이 분노를 그대로 두고 마귀를 위한 자리를 마음속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함으로 가득

찬, 사랑받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라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은 방탕으로 이어지고, 영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 모든 미덕이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에게 자신을 바치세요.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세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복종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데
온화하세요.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합니다.

주인들은 노예들을 돌보는 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더 큰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절로 넘어갑니다. 그는 이 구절, 6장 10절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힘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굳건히 서고,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의의 흉갑을 신어 발을 위한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것을
신으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들의 모든 불타는 죽음을 끌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깨어 있고 인내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고 또한 내가 입을 열 때,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선포할 때, 내가 사슬에 매인 대사로서 담대히 선포할 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몇 가지 차원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는 것은 마침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큰 라틴어 단어인 *prorati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말한 모든 것을 포착하는 강력한 요약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골라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내서 요약을 시도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요. 하지만 제가 마침내라고 말할 때쯤이면, 당신의 마음은 마침내, 예라고 할 거예요.

풀은 마침내 말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이 몇 가지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당신은 강해져야 한다.

수동태로 강해지세요. 어떤 번역에서는 주님 안에서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강해지세요. 강해지도록 자신을 이용하세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의 힘 안에서.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로서 함께 주님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그의 힘의 권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11절.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갑옷을 나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개인적 책임의 갑옷을 입으라고 요청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독자들이 강화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강화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다면,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한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단어들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단어의 다른 번역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악마의 계략입니다.

사실, 그리스어를 읽는다면, 저는 당신을 위해 그리스어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스어를 읽는다면, 실제로 계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법이라는 단어를 유래한 단어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의 영어 단어 방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실제로 교활한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마의 교활한 방식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명확하지 않고 명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온다면 악마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그런데 내가 당신을 찾아갈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책을 세울 수 있나요? 악마의 계략은 교활한 방법으로 번역되는데,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계략이라는 단어는 속임수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그의 능력. 그것은 책략이나 교활함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번역 중 하나는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위장이나 미끼의 형태를 취하는 종류의 속임수를 전달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들어와서 이것이 원본인 척하고 미끼로 당신을 잡도록 하는 매우 교활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요? 글썄요, 당신이 그 질문을 한 것이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때때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x_{yz} 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ESV에서 마귀의 계략으로 번역된 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귀가 자신의 계획을 펼칠 때, 당신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의 기대에 굴복하도록 속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매우 교묘하고 까다로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12절은 그런 다음 전쟁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쟁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우주적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본질에서, 여러분은 그것이 신체 접촉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씨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는 때때로 이것을 상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인간, 저와 같은 인간,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읽는 독자들은 1세기에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악마의 힘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몸을 마주하고, 팔을 마주하고,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폴의 요점은 사실 이겁니다. 멀리서 화살을 던지는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가까이 와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당신을 상대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끼고 냄새 맡을 수 있지만, 그의 방법은 교활합니다. 그는 위장 문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당신은 또한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네, 그것은 씨름입니다. 하지만 씨름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에 대한 씨름이며, 다양한 형태의 악한 영적 권세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현재의 어둠에 대한 우주의 권세에 맞선 싸움입니다. 그는 이미 어둠 속에서 사는 불신자들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의 이해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또한 어둠 속의 삶과 빛 속의 삶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이 세력들이 어둠의 영역에서 활동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적을 보고 일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강화된다면, 그들은 진전을 이루고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전쟁의 본질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심지어 전쟁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인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곤 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보고, 이것이 사실, 문자 그대로 시험의 모습이라고 말할 때 매우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혈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우주적 권세들과 이 어둠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싸움은 묶고 잃음으로써 일어나고 있는가? 저는 오순절 교회와 비교파 교회에서 다양한 일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

당신이 자격을 갖추었다면, 저는 장로교, 감리교 등 다른 교회에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종파 교회에서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교회 중 일부는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모두 구속적이고 패배합니다.

너를 묶는다 악마야, 너를 이렇게 묶는다. 보다시피, 이 구절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대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매우 가까운 접촉 전투에서 그들은 천상의 영역에 있으며, 그들은 이 사악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시도하려는 것은 신자의 이익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투는 실제로 일어나서 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싸움은 윤리적 삶의 방식으로 싸웁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처럼 영적 전쟁은 도덕적 차원에서 싸운다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올바른 기독교 도덕 원칙을 채택하고, 현명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기준에 따라 살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갑옷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서 묶고 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발에 신을 신으라. 평화의 복음으로 주어진 준비를 신으라. 모든 상황에서 너희는 의의 흥감을 입어야 한다.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것으로 너희는 악한 자 곧 마귀의 불길 같은 죽음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영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그가 진리의 허리띠로 금식한다고 말할 때, 그가 로마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복장은, 제가 앞서 보여드리려고 했듯이, 입었을 때는 약간 느슨하지만, 허리띠는 모든 것을 고정하고 군인이 움직이기 쉽게 해줍니다. 바울과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 쉽게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저 돌아다니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위해 서고,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으로 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갑옷의 한 부분을 입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최근에 어떤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저는 에베소서 6장에 대한 논문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동료 학자들은 영적 전쟁은 모두 묶고 잃고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동료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제가 일어나서 아니요, 윤리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묻고 싶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묶고 잃는 것일까요? 마귀와 그의 주요 계략 중 하나가 우리를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의 윤리를 요약한다면, 그는 진실할 때 그를 쓰러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 갑옷은 의의 흉갑으로, 적으로부터 여러분의 몸의 윗부분, 즉 상체를 보호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매우 안전한 곳에 두고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이미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의로움인 하나님의 참된 특성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입히고 싶은 두 가지, 즉 내가 여러분에게 입히고 싶은 미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의 길을 택하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고, 마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와, 이상하죠? 제가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학자들에게서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마귀와 가까이서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는 교활한 방법, 계략적인 방법, 위장, 미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이 근접 전투에서 사용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구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갑옷은 우리가 매일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곱 번 쓰러지면 효과가 있습니다. 목록의 첫 번째는 진실과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진실과 의로움을 제자리에 놓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제자리에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이 담긴 신발을 신는 것처럼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발,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래서 우리가 걷고 움직일 때, 우리는 평화의 복음과 함께 움직이고, 우리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평화의 왕자를 현실로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갑옷에 있습니다 .

그것은 당신이 걸어다니기 위해 발에 신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당신은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불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 예. 그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적의 무기를 알지 못한다면, 적은 그가 쏘 불타는 죽음의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방패를 잡으세요. 방패는 개인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아직 기도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군인이 들고 있는 거대한 금속으로, 적이 화살을 쏘면 방패를 세워 화살이 움직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군인이 방패로 보호받게 하는 것은 군인이 방패가 항상 주변에 있고 좋은 방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당신을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방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끄러운 욕망과 세상이 제공하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에 충실하도록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믿고 신뢰하는 방패입니다. 방패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 편이라고 굳게 믿을 때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방패는 마귀가 당신에게 화살을 던질 때 침투하거나 의심을 만들 수 없도록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기록되었고, 그렇게 해서 전투가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불타는 화살로 침투하는 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화살이 쉬운 화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악한 자들의 불타는 화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불을 가지고 오지만, 믿음은 그것을 꺼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묵고 읽는다는 생각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는 사도행전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귀신과 마주쳤고, 그들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제자들이 사역을 위해 위임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엑소시즘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정신의 일부가 되어 영적

전쟁에 대해 실제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성격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아마도 네 번이나 다섯 번 귀신을 쓰러뜨릴 수 있고 그게 괜찮을 것입니다. 아니요, 실제로 전투는 24시간 내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성실성을 취하고 악마가 실제로 당신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바울은 18~20절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논의에서 기도를 매우 중요한 위치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항상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갑옷 중 하나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삶의 일부여야 하며, 항상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의 영으로 경계하고, 모든 인내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세요. 그러니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원이며, 우리가 신을 부르고, 신이시여, 우리는 바로 전장 한가운데에 있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때의 지원선입니다.

가끔은 힘들고 지쳐 버립니다. 공중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항상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항상 입어야 할 것은 윤리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영적 전쟁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마귀의 일은 너무나 실제적이지만, 그것을 밀어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의 세력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해 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바치라고 요구하는데, 그 기도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 복음의 신비를 선포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데, 그게 내가 부름받은 이유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 대의의 대사예요. 네, 에베소서의 윤리에서 그는 근접 신체 접촉 전쟁의 강력한 이미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둘러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기도 모임에 가고, 그저 악마를 위해 가고,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함, 빛으로 사는 것, 빛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만이 어둠의 열매 없는 일을 소멸시킵니다. 그것은 어둠의 열매 없는 일을 폭로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던져질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가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에만 가고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적 삶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미사에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적 삶.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바울은 마귀가 우리 삶의 가장 작은 약점을 노리고 침투하여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곧 말해 줄게. 이 모든 것, 이 전쟁에 대한 그의 이유는 우리가 영토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도발적인 부분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전쟁은 사고 잃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다.

첫째, 끝날 때까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들어가서, 오,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영토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영토를 잃는 게 아니라고 말할 때입니다. 오, 맞아요 .

바울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목표는 이것입니다. 악마의 계략에 맞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서다입니다.

그것은 전쟁의 처음 몇 구절에 네 번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를 거두셨고,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토를 얻을 필요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또 다른 영토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상대로 예수께서 우리를 그들의 통치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바울은, 서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갑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네, 영토를 얻지는 못할 테지만 서 있을 겁니다.

그가 다시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13절, 악의 날에 저항하고, 모든 것을 다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특권적인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말하고 있지 않고, 칼빈주의자들과 아르메니아인들 사이의 아이디어나 논쟁을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잃느냐, 아니면 이 싸움에서 지고 도덕적으로 파산하게 되면 구원을 잃는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만약 있다면, 저는 천국에 가면 풀과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설명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이 논쟁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분이 제가 제가 몰랐다고 말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주요

요점은 적이 실재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순수함, 경계, 헌신, 기도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의 시대에도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는 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피해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 이 권력의 공권에 대항합니다.

14절은 stand라는 단어의 네 번째 용법인데, stand로 시작해서, 따라서 진실의 종을 금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무기와 우리가 보여야 할 미덕을 나열하기도 전에, stand라는 단어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standing을 유지하십시오. 바울에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가 이 대화에서 기도를 어떻게 두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항상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라.

바울이 자신의 의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교회를 높이고, 상황을 전쟁으로 보라고 요청해 온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마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주 안에서 충실한 목회자인 티키고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리라.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이 목적이요, 너희로 우리가 어떤지 알게 하고 그가 너희 마음을 격려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썩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마무리가 어떻게 오는지 보세요. 거기의 몇 가지 키워드를 보세요.

친족 개념을 도입하세요. 충실한 목사인 사랑하는 형제. 형제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죄수 권총에 대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기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에베소서를 생각할 때, 다민족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통일의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알려진 신비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것은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민족적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시민권은 우월한 정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은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집안의 입양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1세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합을 유지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에베소서의 영적 우주론입니다.

세상은 단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있고, 신의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악의 세력이 실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물리치셨고,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봉하셨으며, 우리

성도들에게 상속을 보장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러한 권세와 권세에 맞서 매우 긴밀하게 씨름하고 싸우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얻을 것은 없지만 유지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모든 존재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 이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이 영의 우주론에서 우리는 언제나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바울 자신이 신에게 기도하고, 신을 찬양하고, 만약 영이 정말로 우리를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밀려날 것이고, 그 효과적인 결과 중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신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패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가 영적 전쟁의 끝에 와서 필요한 갑옷과 무기를 나열했을 때에도, 그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기도가 그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가 개입하여 우리를 대신해 행동할 필요가 끊임없이 필요하며, 우리는 외부 지원을 위해 연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베테랑의 아들이자 군사 용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 것보다 공중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화를 계속 켜두어야 합니다. 라디오를 끄을 수 없고, 전선에서 계속 보호받고 싶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확장해서, 오늘은 목사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적 우주론은 종종 우리의 서구적 기독교 사상에서 간과되지만, 그것을 놓치면 바울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친족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신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입양아이며,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1 세기의 교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모두 연합하여 살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대표하는 것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친족 관계를 거시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정으로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개인에게 하는 모든 지시가 그리스도의 주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내는 우리를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남편은 주 예수께서 사랑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는 실제로 주 안에서 자녀를 존중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노예는 우리에게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지배합니다. 주님은 우리 집을 지배하심으로써 우리의 작은 가정에서 분명해집니다. 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우리는 평화의 왕자가 있기 때문에 평화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대감의 벽을 허물어버린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밑줄로 표시했다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또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된 횟수에 놀랄 것입니다. 또는 그를 위해, 그 안에서라고 언급된 횟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동 모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 간 적대감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 서신에서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빌립보서에 쓴 편지는 그들에게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격려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해 쓰고, 그가 어떻게 사랑과 연합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해 씁니다. 콜로새서에서 그는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대비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어떻게 연합과 지원의 정신을 그 안에 두는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제가 방금 요약했듯이, 감옥 서신은 바울의 마음이 감옥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위대한 일을 보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고 지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이 당신을 만드신 사람이 되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그것을 깨닫도록 소속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당신은 하느님의 가족에 속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이 이 하느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했을 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께서 당신에게 그 은혜와 힘을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감사의 마음이 계속해서 당신을 형성하고 틀잡게 하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그 모든 자원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의 충만함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공부하기로 선택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의 글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강의,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 30, 에베소서 6:10-21
 입니다.